

잠복기·무증상자도 10분진단 ‘K-바이오’ 러브콜 쇄도

씨젠 진단키트 국내·유럽 인증 검사시간 기존 6→4시간 줄여
솔젠트 中에 40만명분 공급계약 美·중남미와 21만명분 계약 체결
진매트릭스 3시간 진단키트 개발 튜브 한개로 진단… 유럽서 인증
수젠텍 10분 신속진단키트 개발 “임상 후 유럽·국내 긴급인증 요청”
옵토레인 정밀·1시간내 진단 가능 감염 초기에도 정확한 결과 제공



진매트릭스 진단키트



수젠텍의 진단 키트

‘K-바이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개발한 진단키트가 코로나19 진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전 세계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문의와 요청 쇄도

1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개발한 진단 키트에 전 세계 주문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다른 진단시약 개발은 미루고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국내 공급과 해외 수출을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씨젠은 최근 세계 30여개국에서 주문 요청을 받고 있다. 씨젠은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18일 부터 국내외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 중이며, 앞서 지난 달 7 일에는 유럽인증(CE)를 획득한 바 있다. 씨젠이 개발한 진단 키트는 기존 6 시간보다 빠른 4 시간만에 검사가 가능한 제품으로, 현재 국내 물량의 70~80%를 공급하고 있다.

씨젠 관계자는 “출시 전 부터 10여개 국으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아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0여개국으로 부터 요청을 받아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다른 진단시약의 개발과 생산을 뒤로 하고,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솔젠트는 지난 달 27일 일본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데 이어, 28일에는 유럽인증(CE)를 획득해 수출할로를 열었다. 솔젠트는 지난 5일 중국파트너사와 40만명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공급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6일 미국, 중남미 파트너사와 21만명분의 진단시약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 전체,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와도 제품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진매트릭스가 진단시간을 3시간으로 대폭 줄여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역시 이날 유럽인증을 먼저 획득했다.

기존 진단 제품들은 두세 개의 튜브로 검사해야 했던 반면, 진매트릭스의 진단 키트는 한 개의 튜브로 일괄 검사가 가능하다. 진매트릭스 관계자는 “유럽 뿐 아니라, 중동과 아시아 지역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보다 먼저 유럽에서 인증을 받으며 본격적인 해외 판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 좋은 장비들이 나온다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진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더 좋은 장비들도 줄줄이 상용화를 대기 중이다.

식약처는 이날 지난 달 28일 까지 질병관리본부에 통해 42개 업체에서 총 64건의 코로나19 진단시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45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며, 8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상성능평가 예정, 8건은 식약처 검토결과와 평가자료 보완 중, 29건은 식약처에서 서류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간에 심사를 거쳐 허가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상용화가 기대되는 기업은 수젠텍이다. 수젠텍은 지난 6일 코로나19의 신속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진단키트는 기존 유전자진단 방식이 아닌, 항체 진단 방식이기 때문에 진단 결과를 10분 만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잠복기간의 무증상 감염자 판별이 가능하다.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 “임상결과가 나오는 즉시 유럽CE 등록 진행할 계획이며 한국 질병관리본부에도 항체 신속진단키트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공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옵토레인은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의 양성·음성의 반복이 없는 정밀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디지털 PCR을 활용해 민감도를 0.01% 수준으로 높여 진단이 어려운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도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 검사 기기의 크기를 줄여 이동이 쉽고, 검사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줄인 것도 획기적이다. 회사측은 혈액 중에 하나 남은 바이러스도 잡아낼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옵토레인 관계자는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에서 이미 코로나19 이전 부터 이 장비를 구비해 에이즈 환자들이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일반 진단 기기들은 잡아내기 힘든 작은 바이러스 개체수 까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음성양성으로 다시 바뀌는 사례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집안에서 춤 추는 콘솔게임 성장 PC방 이용 줄어 당분간 침체에 고

코로나 이후 게임 트렌드

저스트댄스 판매비중 14%로 1위 스파이더맨 등 리메이크도 출시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저스트댄스’로 춤 추는 재미에 빠졌다. 기본전환뿐 아니라 운동도 돼 다음날이면 근육통이 생길 정도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콕’족들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몸을 써서 즐길 수 있는 콘솔게임에 빠진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PC방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줄면서 당분간 침체가 예고돼 대조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월 3일까지 한우리 콘솔게임 판매 순위에서 댄스 게임 ‘저스트댄스 2020’이 판매 비중 14% 1위를 기록했다.

‘저스트댄스 2020’은 음악과 함께 화면에 나오는 댄서들의 춤을 따라추는 리듬 액션 게임이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한국 아이돌그룹 음악들도 포함됐다. 실내에서도 쉽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일반 이용자들의 수요를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콘솔 게임의 성장세는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뉴주는 2019년 게임시장 핵심 트렌드 중 하나로 ‘레트로(복고풍)’를 꼽는다. 콘솔게임은 레트로 유행에 발맞춰 ‘피파’, ‘스파이더맨’ 등 글로벌 인기 지식재산권(IP)의



신규 퍼블리싱 콘솔 PC 플랫폼 음악게임 ‘퓨저(FUSER)’ 이미지(위). /엔씨소프트
 펠어비스 ‘검은사막 콘솔’ 크로스 플레이. /펠어비스

리메이크나 리마스터 버전이 출시되고 있고, 닌텐도 NBC 클래식, 세가 제네시스, 캡콤 홈아케이드 등 레트로 콘솔기도 연이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닌텐도와 소니가 공동 개발했던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은 미국경매에서 36만 달러(약 4억3000만원)에 낙찰되며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PC방 이용자는 줄어들었다. PC방 게임 통계 서비스 더로그에 따르면 3월 첫째주 전국 PC방 총 사용시간은 약 2690만 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과 친구들과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콘솔게임이 주목받고 있다”며 “콘솔게임은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져 다른 플랫폼과 달리 본질적으로 소통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신규 확진 둔화속 수도권 지역감염 비상

신규 확진자 131명… 2주만에 100명대 콜센터 700명 근무, 최소 50명 확진 정부 “둔화 했지만 안심단계는 아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131명 증가해 확진자가 총 75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달 25일 이후 2주 만이다.

하지만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콜센터에서 최소 5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지역 방역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 우려가 커졌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 콜센터에서 직원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 4명을 포함 총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콜센터에는 600~700명 가량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



도 커졌다. 확진된 직원들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이 19명, 경기가 14명, 인천이 13명 등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 환자 46명은 모두 콜센터가 소재한 건물 11층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1층에 근무하는 207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며 다른 층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또 지난 일요일 검사외의 평소보다 적은 6000여 건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며칠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특히 여러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6월 中 개최 ‘CES 아시아 2020’ 연기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시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아시아 2020’이 연기됐다.

전미소비자협회(CTA)는 10일 “CES 아시아를 2015년 중국 상해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매년 성장하며 성과를 이

어왔지만, 올해 CES 아시아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영향이 증가하고 있어 CES 아시아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며 참관사, 바이어, 미디어, 연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CTA 측은 CES 아시아와 같은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 기업과 참가자가 수많은 시간 및 노력을 투자해야함을 인지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ES 아시아 일정 연기 정보를 빠른 시일에 전달함으로써 기업 및 참가자가 전시 참여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리소스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